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사적 고찰*

이지영**

1. 서론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많은 한국어 교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을 비롯하여 교재 편찬의 목적, 학습 대상에 따라 교재의 형식과 내용이 결정되어 왔다. 곧, 간단한 생활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교재에서부터 취업을 위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에 이르기까지 학습 목적이나 학습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교재가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교재마다 교수법의 특징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특히,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에는 보다 다양해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교재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재가 다양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목적에 맞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재의 과거와 현재

---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3-AM1046).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대계몽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출판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사적 고찰을 통해 그동안 어떠한 종류와 유형의 교재가 개발되어 왔는지 밝히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이나 교재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여 목록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기로 한다. 곧,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변천과 교재의 특징을 중심으로 근대 계몽기부터 현재까지를 시기구분을 하고, 각 시기별로 어떠한 교재들이 개발되었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밝히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고 구축된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이 연구에서는 근대계몽기부터 현대까지 어떠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한국어 교재와 관련된 여러 연구의 경향을 먼저 살펴보겠다. 한국어 교재의 역사는 중국 명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한국어 교재의 구성이나 내용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새로운 교재 개발을 제안한 연구로는 허팔복 (1973), 장석진 (1974), 권미정 (1992), 김정숙 (1992), 노명완 (1998), 이해영 (2001), 민현식 (2000, 2002)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대부분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이다. 또

한 해외 여러 나라의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과 교재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상억 (1983), 이정노 (2000)에서는 미국의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재에 대한 논의 중에서 역사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광 (1990)의 연구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배희임 (1990), 장광군 (2000)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마주르 유엔 (1991), 인 알렉산드르 (2000), Ross King (2003) 등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호주는 김영아 (2000), 대만은 중천부 (2000)에서 연구가 되었다. 영국의 한국어 교재에 대한 논의는 연재훈 (2000), 일본은 노마 히데키 (2001)와 후지이시 다카요 (藤石貴代) (2001)에서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현원숙 (2001)과 Suray Agung Nugroho · Lee So Young (2002)에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교재 소개를 하고 있으며, 김중섭 (1999)에서는 북한의 한국어 교재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 원리 및 개발 방안, 구성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는 위태연 (1982), 백봉자 (1991, 1999), 이관규 (1995), 최정순 (1996), 김영만 (1999), 김정숙 (2002), 원진숙 (1999, 2000), 조항록 (2003) 등에서 다양한 분석과 제안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 교재의 역사적인 변천을 단원 구성의 흐름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로 신현숙 (2003), 신현숙 · 이지영 (2003), 이지영 (2003)이 있다.

최근 들어 교재 분석이나 교재 개발과 관련되는 내용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교재 개발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 세계화 재단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2001), 『국외 한국어 교육 자료의 실태 및 개발 방향』 (2003)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한국어 교재나 교

육 자료의 개발 현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의 역사적인 변천에 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다.[1)]

본 연구를 위해 근대계몽기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외에서 약 900여권의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 왔다.[2)] 이 교재들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기 위해 편의상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피기로 한다. 시기 구분을 하려면 교육과정이나 교육사조의 변화, 교재 편성 및 교과 운영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통일된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나 교육기관의 발전과정과 교수법의 변화, 교재의 개발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특징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먼저 이와 관련된 앞선 연구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백봉자 (2001)에서는 한국어 교육 변천 시기를 한국의 경제 발달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ㄱ. 초창기 (1959-197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설립
ㄴ. 변화기 (1976-1988): 한국의 경제적 성장기/ 학습자의 국적 다양화와 수 증가
ㄷ. 발전기 (1989-2000):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어 학습자와 학습동기의 다양화
ㄹ. 도약기 (2001년 이후): 학습자, 연구자, 교육자의 증가

곧, 자료 (1)과 같이 한국어 교육의 역사를 네 시기로 나누었는데 주로 한국의 경제력과 국력 신장에 따른 학습자의 다양화나 증가 추세를 기준으

1) 신현숙 · 이지영 (2003), 이지영 (2003)에서 단원명과 단원구성의 흐름을 살펴본 바 있다.
2) 이것은 근 · 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조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 중에서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소실되거나 이 연구에서 미처 조사하지 못한 교재가 더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로 시기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설립을 초창기로 잡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항록 (2003)에서는 한국어 교육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2) ㄱ. 태동기 (1897년-1970년대): 국내외 소수의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 시기
ㄴ. 도약기 (1980-1990년대 중반): 한국어 교육기관의 증가
ㄷ. 안정적 성장기 (1990년대 중반-현재): 한국어 교육기관 및 학습자의 점진적 증가

자료 (2)와 같이 한국어 교육의 발달 단계를 세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태동기가 길게 설정이 되어 있고 1990년대의 중반이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 시기, 교재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교재 유형 및 특성,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기 구분을 하기로 한다.[3)]

(3) ㄱ. 1기 (근대계몽기-1958년): 근대 계몽기부터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이 생기기 전까지의 시기

3) 근대 계몽기 외국인에 의해 한국어 교재나 문법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간행된 역어집이나 중국어 혹은 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교재가 있었다. 중국 송 (宋)나라의 손목 (孫穆)이 지은 역어집 (譯語集) 계림유사 (鷄林類事)를 비롯하여 1492년에서 1505년 사이에 편찬된 13관 화이역어 (十三館 華夷譯語)의 맨 처음에 실려 있는 조선관역어 (朝鮮館譯語), 역관 (譯官) 양성을 위해 조선 초부터 사역원에서 사용했던 중국어 회화책 노걸대류, 조선 중기의 일본어 학습서 첩해신어 (捷解新語) 등을 들 수 있다.

ㄴ. 2기 (1959년-1985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재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

ㄷ. 3기 (1986년-1997년): 한국어 교육기관의 증가와 교재 개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 집중, 과제 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

ㄹ. 4기 (1998년-현 재): 과제 중심, 기능 통합형 교재 개발 시작,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

자료 (3)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1기는 근대계몽기부터 1958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지어 볼 때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그 후로 나뉠 수 있는데 한국어 교육 차원에서는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에 교육의 초점이 달라지지만 교재 개발에 있어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함께 살피기로 한다. 근대계몽기에는 한국에 왔거나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선교사 혹은 외교관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교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교재의 형식을 갖춘 첫 번째 것은 1877년에 출판되었다. 그 후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영어와 일어, 불어, 독일어 등으로 그들이 습득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는 정책적으로 한국어 (조선어) 교육을 하게 된다. 광복 이후 1958년까지는 그 당시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교육은 물론 교재 편찬도 드물었다.

2기는 1959년부터 1985년으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명도원 등 그 당시 대표적인 국내의 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재 개발을 한 시기이다. 이 교재들에는 그 당시에 주요 교수법이던 청각구두교수법이 반영되어 있다. 이 밖에도 국외에서 대학기관을 중심으로 교재가 개발되고 개인이 출판한 교재도 있다.

3기는 1986년부터 1997년으로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에 한국어 교육기관이 신설되고 이에 따른 교재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또한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점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 집중되고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한다. 1995년경부터 과제 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교재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는 시기이다.4)

4기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여러 교육기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론과 교수법의 변화가 교재에 반영되어 과제 중심, 기능 통합형 교재가 개발되기 시작되는 시기이다. 또한 학문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산업체 근로자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1기부터 3기까지와 비교할 때 연구 성과물이나 교재 출판이 양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연구 내용이나 교재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문화 소개나 문화 교육이 교육 현장과 교재에 반영되는 추세이다. 또한 온라인 교재나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교육 기관이나 단체에서 한국어 교육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자료 (3)과 같이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특징을 살피기로 한다. 다음 <표 1>과 같이 학습 대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재외동포로 구분하고 외국인을 위해 출판된 교재와 재외동포를 위해 출판된 교재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피도록 한다. 나아가 출판지나 출판기관을 기준으로 국내 교재와 국외 교재도 구분하여 교재 출판의 경향과 특징을 살피도록 하겠다.

---

4) 최정순 (1996)의 논문에서 과제의 개념을 교재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된 후로 과제 중심 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표 1: 한국어 교재 분류 기준>

분류	학습대상	출판지/ 출판기관	
1	외국인 대상 교재	국내	언어교육기관 발행 교재
			개인적으로 출판한 교재
		국외	언어권별 교재
2	재외동포 대상 교재	국내	재외국민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교재
		국외	언어권별 교재

또한 시기별, 학습대상별 분류한 한국어 교재를 교재 유형과 체재로 나누어 특징을 살피기로 한다.5)

(4) ㄱ. 교재 유형: 발음 교재, 문법 교재, 발음·문법 교재, 문법·회화 교재,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듣기 교재, 쓰기 교재, 기능통합형 교재

ㄴ. 교재 체재: 교재 등급, 교재 구성, 단원 구성

곧, 자료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음 교재, 문법 교재, 발음·문법 교재, 문법·회화 교재,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듣기 교재, 쓰기 교재, 기능통합형 교재로 구별하여 각 시기별로 어떤 유형의 교재가 개발되었는지 살핀다. 나아가 각 시기별로 교재 등급, 교재 구성, 단원 구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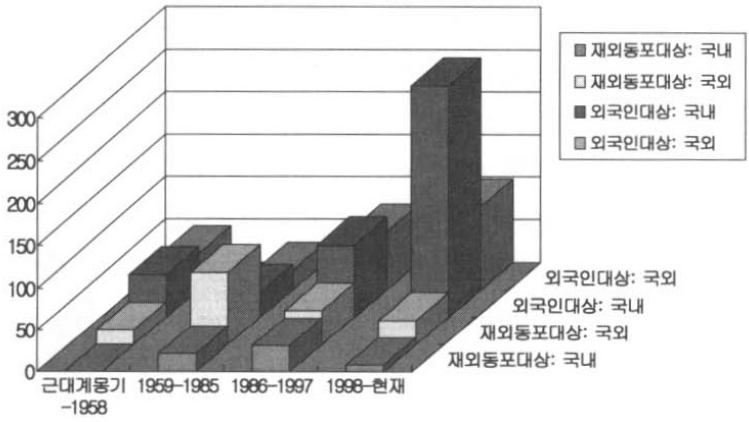
지금까지 조사된 한국어 교재는 약 900여권 정도이며 이를 앞에서 구분한 각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5) 교재유형과 체재에 관해서 민현식 (2000, 2002)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표 2: 근현대 국내외 한국어 교재 출판 현황>

교재출판시기	외국인 대상 교재		재외동포 대상 교재		합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근대계몽기-1958년	50권	42권	0권	17권	109권
1959년-1985년	30권	23권	21권	86권	160권
1986년-1997년	85권	68권	31권	40권	224권
1998년-현 재	273권	98권	8권	29권	408권
합 계	438권	231권	60권	172권	901권

<표 3: 근현대 국내외 한국어 교재 출판 현황도표>



곧,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교재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그 수가 많으며, 국내에서 출판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의 수가 국외에서 출판된 것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어 교육과 교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한국어 교재의 시기별 특징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교재 개발의 역사적 흐름을 네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출판된 교재의 특징을 그 수와 종류, 유형과 체재를 중심으로 하여 살피기로 한다.

3.1. 1기: 근대계몽기-1958년의 한국어 교재

근대계몽기부터 1958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과 한국어 교육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에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 조사된 것은 109권이다. 그 중에서 외국인 대상의 교재가 92권이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가 17권이다.

이 시기의 한국어 교재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언어교육 교재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 언어연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6] 또한 재외동포보다는 외국인 대상의 교재가 많다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1.1. 외국인 대상 교재

외국인 대상 교재 92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50권이고 국외에서 출판된 것은 42권이다. 국외의 경우, 일본을 비롯하여 소련,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교재를 출판하였다.

---

6) Ross, J. (1877)에 실린 구어체 문장은 평안 방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김영배 (1997)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응찬(李應贊)이라는 평안북도 의주 출신의 사람이 선교사 Ross의 한국어 교사로 알려져 있으며, 초판과 재판은 평안 방언과 중부 방언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에 대해 이해한 바를 책으로 엮은 것이 외국과 한국에서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선교사나 외교관 또는 언어학자에 의해 영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등으로 한국어 문법서나 회화서가 간행되었다. 이러한 교재는 근대계몽기 초기에는 문법에 관한 비중이 적고 회화문을 많이 제시해 놓고 있지만 후기로 가면서 문법에 대한 기술이 자세해지고 회화문도 문법 항목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7]

이 시기 교재 중 대표적인 것으로 Ross, J. (1877)와 寶迫繁勝 (1880)가 있다. Ross, J. (1877) 『Corean Primer』는 영어로 된 한국어 회화서로서 문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도입부에서는 한국어 문법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비롯해서 인칭대명사와 동사의 특징을 서술하고 자모의 음가와 발음 규칙도 제시하고 있다. 회화부에서는 33과에 걸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장이 실려 있다. 문법에 관한 서술이 짧고 구체적이지 않지만 최초로 책자의 형태를 갖춘 문법서로 그 당시 한국어의 풍부한 실례를 한글로 보여주고 있다.

寶迫繁勝 (1880)의 『韓語入門』은 일본 사람을 위한 최초의 한국어 문법서로 상권과 하권에 4편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8] 상권에서는 언문 자모와 그 결합을 비롯하여 체언이라는 제목으로 어휘를 여러 가지 주제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 하권에서는 명사를 비롯하여 인칭, 성, 수, 격, 대명사, 접속사, 비교급, 관형용사,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또한 『韓日善隣通話』에서는 간단한 문법과 함께 어휘나 문장을 제시해 회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관리에 대한 조선어 교육

---

7) 고영근 (1987, 1998, 2001)에서 외국인에 의한 한국어 문법서와 교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8) 권미정 (1992), 조항록 (2002) 참조

정책이 시행되고 이를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 일본과 국내에서 출판되었다.[9] 따라서 이 시기에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가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교재에 비해 많은 편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1885년 도쿄외국어학교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와 함께 조선어학과가 설치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학생수가 줄면서 폐과되고 그 후 1925년 텐리(天理)외국어학교에 조선어학과가 설치되었다.[10]

(5) ㄱ. 寶迫繁勝. 1880.『韓語入門』(上下)/ 寶迫繁勝. 1880.『日韓 善隣通話』(上下)

ㄴ. 島井浩. 1902.『實用韓語學』/ 伊藤伊吉. 1905.『獨學 韓語大成(全)』/ 安永中. 1906.『韓語』/ 前間恭作. 1909.『韓語通』/ 藥師寺知曨. 1909.『文法註解 韓語硏究法』/ 高橋 亨. 1909.『韓語文典』

ㄷ. 津田房吉. 1910.『韓語學大典』/ 趙義淵・井田勤衛. 1910.『日韓韓日 言語集』/ 漢城外國語學校. 1911.『國語朝鮮語字音及用字比較』/ 朝鮮總督府. 1912.『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 朝鮮總督府. 1917.『朝鮮語法及會話』/ 新壓貞順. 1918.『鮮語階梯』/ 崔在翊. 1918.『朝鮮語の先生』

ㄹ. 朝鮮總督府. 1920.『朝鮮語辭典』/ 朝鮮總督府. 1921.『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 朴重華. 1923.『日本之人 朝鮮語獨學』/ 魯璣柱. 1924.『應用自在 朝鮮語法詳解』/ 京城府朝鮮語硏究會. 1924.『월간잡지 朝鮮語』/ 山本正誠. 1925.『朝鮮語會話辭典』/ 李完應. 1926.『朝鮮語發音及文法』/ 鄭國采. 1926.『現行 朝鮮語法』/ 奧山仙三. 1929.『語法會話 朝鮮語大成』

ㅁ. 朝鮮總督府. 1930.『諺文綴字法』/ 張志映. 1930.『朝鮮語綴字

9) 허재영 (2003)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어 교육 정책과 교재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10) 이선아 (2000) 참조

法講座』/ 朝鮮總督府. 1930.『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編纂趣意書』/ 京城府朝鮮語研究會. 1933.『朝鮮文朝鮮語講義錄合本』(上中下) / 朝鮮總督府. 1938.『初等朝鮮語讀本 全(簡易學校)編纂趣意書』

ㅂ. 警察官講習所. 1943.『朝鮮語敎科書』

자료 (5)와 같이 1880년부터 1943년까지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소련에서도 일찍부터 대학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 교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성 페테스부르그 대학교에서 1897년에 한국어 강좌가 시작되었는데 민경식과 김병옥 등이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99년에는 원동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시작되고 이 시기에 개발된 교재는 다음과 같다.

(6) ㄱ. 푸찔로 (Putsillo. M.P.) 러시아어 (3,700)-한국어 (5,000) 사전 (1874)

ㄴ. 김병옥. 한국어 교본/ 따이쉰 (Tajshin A.I.) 러-한 소사전 (1898)

ㄷ. 꾸즈민 (Kuzmin N.I.) 한국어 입문서 (1900)

ㄹ. 포드스타빈 (Podstavin G.V.) 한국어 교본 (교재/ 독본/ 사전) 심상소학 (1901)/ 실용회화 (1902)/ 한국공문서, 사무문서 문례집 (1903)/ 표준한국어독본 (1905)/ 현대 한국 풍자문학 작품초/언문초서 (1907)/ 한국어 실용회화 사전 (1909)

ㅁ. 흘르놉스키 (Hlynovskij M.) 러시아어-일본어-한국어 군사회화집 (1904)

ㅂ. 홀로도비치 아아 (Xolodovich A.A.) 한국어 문법 (1937)/ 한국어 구조 (1938)

자료 (6)과 같이, 소련의 경우 한국어 교육도 일찍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이나 독본, 회화집, 문법서 같은 한국어 교재도 개발되었다. 특히, 포드스타빈이나 홀로도비치 같은 학자는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교재 개발에 노력하였다.

미국에서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고 자습서를 개발하였으며, 대학교에서 문법서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7) ㄱ. Pai, E. W. 1944. Conversational Korean. Washington, D. C.
ㄴ. Fred Lukoff. 1945. Spoken Korean Book One.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ㄷ. Fred Lukoff. 1947. Spoken Korean Book Tw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ㄹ. Chang Hei Lee. 1955. Practical Korean Grammar. 워싱턴 대학교 출판부

이 시기 미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자료 (7)에서와 같은데 (7 ㄴ-ㄷ)은 1940년대에 진주만에서 군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개발한 교재이다.

한편, 1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유형과 체재는 다음과 같다.

(8) ㄱ. 교재 유형: 발음 · 문법 교재, 문법 · 회화 교재, 문법 교재
ㄴ. 교재 체재
- 교재 등급: 상 · 하로 구성된 교재 2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1권으로 구성
- 교재 구성: 도입, 문법-어휘 (문장), 부록
- 단원 구성: 단순한 구성 (본문-번역)

자료 (8)과 같이 이 기간동안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유형은 발음·문법 교재, 문법·회화 교재, 문법 교재 등이 있다. 교재의 체재 중 교재 등급은 특별한 구분 없이 1권이나 2권 정도로 나뉘었으며, 교재 구성은 문법을 설명하면서 어휘집과 같은 형식으로 관련 어휘들을 모아 놓거나 문장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교재의 차례는 문법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재가 대부분이며, 회화에 좀더 초점을 둔 교재는 주제 중심으로 차례를 구성하였다.

교재 단원구성의 경우 사실상 단원의 개념 또한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1870년대부터 1920년대 말까지는 교재에서 주로 기본이 되는 회화문을 제시하고 그것을 영어나 일어 등으로 번역해 놓은 유형의 교재가 대부분이었다.

(9) ㄱ. Ross (1877: 6): 단원별로 문장 수도 다르고 한국어 문장 아래 로마자 표기 및 단어별 번역을 제시
ㄴ. Scott (1887, 1893): 한 과에 16개씩의 문장을 제시하고 로마자, 각 단어의 영어 번역, 전체 문장 의미를 영어로 제시
ㄷ. Gale (1894, 1916): 문장, 영문 번역
ㄹ. Underwood (1890): 문법 설명과 예문, 영문-한국어 문장/ (단어번역 (아래))의 형식

곧, 자료 (9)와 같이 각 교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문이나 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구성적 특징이 단원 구성에서 나타나지 않아 이 시기의 교재가 교재 개발의 이론적 배경이나 교수법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이나 예문을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1.2. 재외동포 대상 교재

재외동포를 학습대상으로 하여 출판된 교재 17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조사된 것이 없으며 소련과 일본에서 재소 고려인을 위한 교재와 재일교포를 위한 교재가 출판된 바 있다. 1862년 연해주에 한국인이 이주한 기록이 있고, 그 후 1917년 재소한인의 문맹퇴치운동 전개하면서 문자편/ 한국어 교과서/ 독본/ 학교용 문법책 등이 개발되었다. 한편, 구소련에서는 그곳으로 이주한 한민족의 민족어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재가 출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ㄱ. 판꼬프 (Pjankov V.G) 한인학교용 한국문자교본 (1874)
ㄴ. 『무식을 없이하는 자란이의 독본』 (1925)
ㄷ. 원동로력학교 『새 독본 붉은 아이 데삼권』 (1927)
ㄹ. 오창환 『고려문전』 (1930)/ 『초등학교 조선어 교과서』 (1933)/ 『중등학교 조선어 교과서』 (1934)
ㅁ. 강채정 · 게봉우 『고려어 교과서』 (1937)
ㅂ. 게봉우 『조선문법』 (1947, 1948)/ 『조선말이 되어진 법』 (1954)
ㅅ. 김병하 『조선어독본』 (1949) 『조선말본』/ 『조선어문법』 (1954)/ 『조선어문법 하편』 (1958)
ㅇ. 김병하 · 한득봉 · 한순천 『조선어독본』 (1949)
ㅈ. 김병하 · 황윤준 『조선어 교과서』 (1954)/ 『조선어문법 상편』 (1957)

자료 (10)과 같이 소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어문교육을 위해 다양한 문법서나 교과서 종류가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세기 초 재미한인의 국어교육이 학생양성소와 국어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11] 그 당시 재미한인들은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조국정심이 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국민독본, 초등쇼학, 초학첩경, 국문첩경』 등이 교재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경우 1945년에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연맹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재가 개발되었고 이 시기 교재로 리진규 (1953)의 『인민한글교본』이 있다.

한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의 유형과 체재는 다음과 같다.

(11) ㄱ. 교재 유형: 문법 교재, 독본 (읽기 교재)
ㄴ. 교재 체재
- 교재 등급: 등급 없이 1권으로 구성되거나 상·하권, 학년별
- 교재 구성: 도입-단원-부록
- 단원 구성: 본문→연습문제 (공부할 문제) 유형

교재 유형으로는 대부분 문법서가 많으며 독본도 있다. 교재의 등급은 상·하로 구성되거나 학습자의 학년에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재 구성은 도입과 단원, 부록으로 구성되고, 단원은 본문과 연습문제로 구성된 교재가 많다. 재외동포 교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과서와 비슷한 유형이 많은 편이다. 오창환 (1933) 『초등학교 조선어교과서』는 문법 형식을 중심으로 단원명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 단원별로 문법 설명이나 그와 관련된 지문을 제시하고 '과제'라는 연습문제가 있다. 어떤 단원은 바로 과제로 들어가기도 한다. 오창환 (1934) 『중등학교 조선어문법 교과서 (문장론)』에서는 6-7학년에 맞는 문법적 지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단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앞부분에 문법 설명을 하고 뒤에 '련습재료'를 붙였다.

---

11) 윤금선 (2004)에서 <新韓民報>의 기사를 중심으로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3.2. 2기: 1959년-1985년의 한국어 교재

이 시기에는 국내에 언어교육 기관이 설립되고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9년부터 1985년까지 160권의 한국어 교재가 출판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대상의 교재가 53권이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는 107권이다. 이 시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보다 많이 출판되었다.

3.2.1. 외국인 대상 교재

외국인 대상 교재로 조사한 53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30권이고 국외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23권이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 국내에서 출판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 중 대표적인 것은 연세대학교 교재, 서울대학교 교재, 명도원 교재이다. 1959년 연세대학교 어학당이 생기면서 한국어 교육기관을 위한 교재가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1969년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재외동포 특히 재일교포 유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을 비롯하여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4년 10월 2일 외국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학교인 '명도원'이 설립되면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는 언어뿐 아니라 선교사가 꼭 알아야 할 한국 문화 등 세세한 면까지 기술해 놓았다.

(12) ㄱ. 박창해 (1960, 1965) 『한국어 교본 1, 2』/ 박창해 · 박기덕 (1973) 『한국어 1』/ 박기덕 (1980) 『한국어 2』/ 연세대 (1979) 『한국어 독본 1-6』

ㄴ. 서울대 (197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독본』/ 서울대 (1978) 『한국어 1-2』/ 서울대 (1979) 『한국어 1, 2』/ 서울대 (1980) 『한국어 3』

ㄷ. 『명도원 한국어』 (Myongdo's Korean '68), 『중급 한국어』 (Intermediate Korean), 『한자』 (Chineses Characters), 『한국어 읽기』 (Korean Reader), 『명도원 한국어 읽기』 (Myongdo's Korean)

자료 (12)에서 제시한 교재 외에도 강윤호 · 김명희 (1979) 『한국어』와 한자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인 Bruce K. Grant (1979) 『A Guide to Korean Characters』가 있다.

한편, 국외의 경우는 미국은 대학 중심의 독본 형태 교재와 문법서, 국방부 주관의 교재가 있으며, 대만, 중국, 일본 등에서도 대학 교육을 위해서 교재를 개발하였다. 대만은 1956년부터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어 현재 중국문화대학과 정치대학에 한국어문학과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외대 (1963), 도쿄외국어대학 (1977), 도야마대학 (1978), 오사카외국어대학의 조선어연구실 (1985)이 생겼다.

(13) Sung-Un Chang (1960) 『Korean Newspaper Readings』/ D. L. Olmsted (1960) 『Korean Folklore Reader』 인디아나 대학/ B. Nam Park (1968/ 1969) 『Koran Basic Course』(미국 국방부)/ 허벽 (1972) 『한어독본』/ 이동재 외 (1972) 『Learn Korean』/ 북경대 · 연변대 (1976) 『실용어법』 / 동경외대 (1979) 『조선어 초급』

자료 (13)과 같이 여러 나라의 대학교에서 개발한 교재 외에 북한에서도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출판되었다. 조사한 자료가 주로 대학교재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시기에 국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주로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개발된 한국어 교재는 전체적으로 청각구두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교재 안에 발음, 문법에 대한 지식을 함께 다루는 교재가 많이 개발되

었으며 읽기 교재나 문법 교재는 개발이 되었으나 듣기 교재는 조사된 것이 없다.

(14) ㄱ. 교재 유형: 회화교재, 읽기교재, 문법교재
ㄴ. 교재 체재
- 교재 등급: 2등급/ 3등급
- 교재 구성: 도입-단원-부록
- 단원 구성: 본문→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이 시기 교재 유형은 대학교나 대학교 부설의 한국어 교육기관 중심 교재로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문법 교재 등이 있으며 교재 등급은 2등급/ 3등급, 학습 대상은 외국인, 종교인 등으로 다양해졌다. 단원 구성은 '본문→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이 대부분의 교재에 나타난다. 이것은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영향이 교재에 반영된 것이다.

(15) ㄱ. 연세대『한국어교본』(1967): 본문→추가 단어나 문장 (Additional Vocabularies (Sentences))→문법연습 (Grammar Note)→연습 (교체연습/ 응답연습)
ㄴ. B. Nam Park (1968, 1969): 본문→번역 (로마자표기/ 단어번역/ 문장 번역)→대화 설명 (Note on Dialogues)→문법설명 (Grammar Notes)→문형연습 (Drills)→연습 (Exercises)

B. Nam Park (1968, 1969)에서는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이나 연습문제는 모두 영어로 쓰고 있으며, 왼쪽에 한국어 대화를 제시하고 오른쪽에 번역문을 제시한다. 그러나 2권에서는 로마자 표기가 없어지고 단어 번역과 문장번역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형연습 다음에 보충 대화 (Supplementary Dialogues for Comprehension)와 읽기 지문 (Narratives for

Comprehension and Reading)이 더 첨가되었다.

3.2.2. 재외동포 대상 교재

재외동포 대상 교재로 조사된 107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21권이고 국외에서 출판된 것은 86권이다. 국외의 경우, 일본과 미국[12]에서 주로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는 문교부에서 재외동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재를 출판하였고,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1960년대 말에 재일교포 유학생을 위한 교재로 발음 교재/ 문형 교재/ 독본 교재/ 작문 교재 등의 교재를 편찬하였다. 이 중 독본을 제외한 나머지 교재는 단원별로 발음이나 문형, 작문과 관계된 문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재외동포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재는 한국인을 위한 국어교과서와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16) ㄱ. 교재 유형: 발음 교재, 문형 교재, 읽기 교재, 작문 교재, 회화 교재
ㄴ. 교재 체재
- 교재 등급: 초급/ 중급/ 고급, 연령에 따른 등급
- 교재 구성: 도입-단원-부록
- 단원 구성: 본문→단어설명→문법 설명→연습문제 유형

한편, 국외에서는 일본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에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을 위한 교재를 출판하였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13]

---

12) 이상억 (1983)에서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미국 재외동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3) 이 자료들은 현재 북한자료센터에 다수 보관되어 있다.

(17) ㄱ. 독　　본: 성인학교, 청년학교, 중·고 편입생용
ㄴ. 성인국어: 초급, 상급, 고급
ㄷ. 국　　어: 초급, 중급, 고급, 편입생용, 야간학교용, 하기학교용
ㄹ. 작 문 집: 초급, 중급
ㅁ. 말 하 기: 초급, 중급
ㅂ. 조선어 문법: 고급
ㅅ. 조선말 규범집
ㅇ. 국어학습지도서

곧, 일본에서는 자료 (17)과 같이 초급에서 고급,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가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3기: 1986년-1997년의 한국어 교재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한국어 교육이 보다 더 활발해지고 한국어 교육기관이 많이 생기게 된다. 1986년부터 1997년까지 224권의 한국어 교재가 출판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대상의 교재가 153권이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가 71권이다. 언어교육기관에서 출판한 외국인 대상의 교재나 재외동포 대상의 교재 출판이 활발한 편이다.

3.3.1. 외국인 대상 교재

외국인 대상 교재 153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85권이고 국외에서 출판된 것은 68권이다. 국외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유럽,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교재가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는 1986년 고려대학교, 1988년 이화여자대학교, 1990년 서강대

학교 등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기관이 신설되면서 언어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에서도 2기에 출판했던 교재와 다른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기관용 교재가 출판된다. 이 시기 교재들은 말하기와 읽기 중심으로 개발되었는데 고려대학교 교재에서 흑백이지만 그림을 제시하면서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언어교육기관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6단계로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교재도 있다.

(18) ㄱ. 교재 유형: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듣기 교재, 문법 교재
ㄴ. 교재 체재
- 교재 등급: 6등급
- 교재 구성: 도입-단원-부록
- 단원 구성: 본문→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자료 (18)과 같이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듣기 교재, 문법 교재가 함께 개발되고 교재의 등급은 6등급이 일반화되기 시작한다. 교재 구성을 도입과 단원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도입과 부록에 한글에 대한 소개나 색인 등이 첨부된다.

(19) 고려대 (1986) 『한국어 회화/ 한국어』/ 이화여대 (199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 연세대 (1992-1994) 『한국어 1-6』/ 한국외대 (1996-1997) 『한국어 1, 2』 / F. Park (1984) 『Speaking Korean 1-4』/ Fred Lukoff (1993) 『An Introductory Course in Korean 1-3』/ 임호빈 외. (1987, 1997) 『문법서』 『개정 문법서』/ 조인정 · 조영아 (1995) 『Korean through Active Listening 1, 2』

국외에서는 외국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가

일본, 대만,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러시아, 북한 등에서 출판되었다. 일본은 1976년에 일본방송협회, 1984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조선어 강좌가 시작되었다. 1987년에는 간다 외국어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생기고 그후 규슈산업대학, 규슈국제대학, 구마모토 국제대학, 나이가타 현립 여자단기대학, 히로시마 현립대학 등에 한국어 전공이 생겼으며, 최근에 와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설학원과 학교가 더욱 많아졌다.

3.3.2. 재외동포 대상 교재

재외동포 대상 교재 71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31권이고 국외에서 출판된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40권 정도가 출판되었다.

재외국민을 위한 교재는 1960년대말 경부터 현재까지 문교부와 서울대 어학연구소, 재외국민교육원에서 개발되다가 국제교육진흥원을 거쳐 지금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학습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20)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 (1981) 『국어회화 1, 2』/ (1988) 『한국어 1-4』/ (1989) 『특급』/ (1990) 재일 한국 중학교용 『한국어 상급 중급』/ (1991) 재일 한국 소학교용 『한국어 상급 중급』/ 국제교육진흥원 (1993) 『교사용 지도서』/ 국제교육진흥원 (1995-1997) 『한국어 1-4 상하』

국외에서도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재외동포 교재가 다양화되었다. 미국에서는 재외동포 어린이 대상 교재가 다양하게 출판하였고, 연변에서도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교재가 출판되었다. 특히 연변에서 개발한 교재는 학교 교육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각 학년에 맞추어 교재가 있다.

(21) 박희서 (1982) 『한글기초 1-2』/ (1989) 『한글 초급-중급-고급』/ 박창해, 박의근 (1987) 『한국어 600 준비책』/ 허병렬 (1996) 『한국어』/ 중국 중등사범학교 (1990) 『조선어문법』/ 박서암 외 (1993-1996) 『조선어문 1-12』

자료 (21)과 같이 미국과 중국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교재가 개발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주말 한국학교와 같은 곳에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교재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족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22) ㄱ. 교재 유형: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문법 교재
ㄴ. 교재 체재
- 교재 등급: 2등급/ 4등급/ 학년별 등급
- 교재 구성: 도입-단원-부록
- 단원 구성: 본문→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자료 (22)와 같이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문법 교재가 출판되었고, 교재 등급은 2등급이나 4등급, 혹은 학년별 등급에 맞춰 개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단원 구성은 대부분의 교재에서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반영된 형식을 보이고 있다.

(23) ㄱ. 『국어회화 1』 (1981): 본문-발음연습-대치연습-문답연습-단어공부-문법공부
ㄴ. 『한국어 회화 2』 (1989): 일상편 (본문-발음연습-단어공부-대치연습-문답연습-연습문제), 응용편 (본문-대치연습-문답연습-학습연구)

ㄷ. 『한국어 초중급』 (1991): 초급 (학습요소-본문-기본문해설-문형연습-문답-연습문제), 중급 (학습요소-본문-어휘-문법 · 문형연습-연습문제)

ㄹ. 국제교육진흥원 (1995) 『한국어 중급 I (상, 하)』: 본문-학습활동(내용학습-문형연습-문법-회화연습-연습문제)

ㅁ. 국제교육진흥원 (1997) 『한국어고급 I (상,하)』: 본문-학습활동(내용학습-회화학습(문형연습-대치연습-문답연습)-학습문제)

ㅂ. 김석연 (1996): 본문 (Model Conversation)- 새 단어와 표현 (New Words and Expressions)- 문법설명 (Grammar Notes)- 구어연습 (Oral Practice)- 문법연습 (Grammar Drills)- 산문 (Narrative Passage)- 읽기 지문(Supplementary Reading)

자료 (23)과 같이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에서 발행한 『국어회화 1』 (1981)은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교재 개발에 반영되었음을 단원 구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발음연습에서는 단어 밑에 발음기호를 제시하고 발음에 관원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다. 단어 공부에서는 단어의 의미나 경어, 유사한 예를 더 제시하여 단어 확장도 하고 있고 한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어 회화 2』(1989) 는 일상편과 응용편으로 나뉘어 한 권의 교재에서 다른 단원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초중급』(1991)은 초급의 본문은 학습요소에 맞는 문장들이 실려 있고, 중급은 산문형식/ 일기/ 옛날 이야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어 중급 I (상 · 하)』 (1995)와 『한국어고급 I (상 · 하)』 (1997)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교재로 역시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교재 개발에 반영되었음을 단원 구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석연 (1996)은 미국 내에서 한국어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SAT II의 한 과목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출판하게 된 교재이다.

3.4. 4기: 1998년-현재까지의 한국어 교재

이 시기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연구 논문이나 교재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출판된 자료의 양이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편이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408권의 한국어 교재가 출판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대상의 교재가 371권이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가 37권이다.

3.4.1. 외국인 대상 교재

외국인 대상 교재 371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273권이고 국외에서 출판된 것은 98권이다. 국외의 경우,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교재가 출판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중심이 되기 시작한 시기로 과제에 대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연구 결과가 반연된 과제 중심 교재, 기능 통합형 교재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다양화에 맞는 다양한 교재, 곧 노동자를 위한 교재, 문화 중심 교재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나아가 대학기관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교재를 출판하여 한국어 교육기관/ 학원/ 개인이 다양한 교재를 출판하였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한국어 교재 출판되고 사진과 그림이 교재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4) 이화여대 (1998, 1999), 김중섭 외 (2000, 2001), 서강대 (2000), 서울대 (2000), 선문대 (2000, 2001), 이화여대 (2000, 2001), 조항록 외 (2002)

자료 (24)에서 제시한 교재들에서는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교재 구성과

내용에 관련된 교재 구성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교재에서 다루게 될 문법 구조 및 표현, 기능, 준비 학습 내용, 과제 학습 내용, 어휘, 발음, 쉼터,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듣기 교재나 쓰기 교재는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는 각 기관의 교재가 통합교재의 성격이 강해 교재 안에서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를 함께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한 주교재와 더불어 워크북도 함께 개발이 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어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도 범용 교재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이 교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기능별로 분리된 교재이다.

국외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출판하였고 특히 미국의 경우 Young-Mee Cho 외 (2000)는 KLEAR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에서 개발된 교재로 많은 미국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한국 기업의 진출과 경제 발달로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교재 출판 역시 그 수와 종류가 많아졌다.

한편, 최근 들어 한국어 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재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온라인상에서 교육하는 교재와 CD롬 교재, 비디오 테이프 등이 있다.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를 비롯하여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의 KOSNET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글과 기초표현,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Teen Korean의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호주 모나쉬대학 등에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기 교재의 유형과 체재의 특징은 다음 자료 (25)와 같다.

(25) ㄱ. 교재 유형: 기능 통합형 교재, 회화 교재, 읽기 교재, 쓰기 교재, 연습 교재

ㄴ. 교재 체재

- 교재 등급: 6등급
- 교재 구성: 도입-단원-부록
- 단원 구성: 기능통합, 과제 중심 구성

곧, 이 시기의 교재 유형이 다른 시기와 다른 점은 기능통합형 교재가 개발된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언어교육기관의 주교재를 위한 연습 교재가 함께 개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앞선 시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1999년-2002년), 서강대학교 (2000년-2001년), 경희대학교 (2000년-2001년) 교재를 비롯하여 최근 개발된 몇 가지 교재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과제중심으로 개발된 교재이다. 단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ㄱ. 이화여대 1-3: 공부합시다 (Activities)-연습-쉼터-해 봅시다 (Tasks)-읽기 (단어와 표현, 내용 이해)
ㄴ. 경희대 중급 1-2: 도입-듣고 말하기-듣기 과제1-문법-듣기 과제 2-읽고 말하기-쓰기-한국 문화-듣기지문
ㄷ. 서강대 1-2: 말하기 (Speaking)-읽고 말하기 (Reading and Speaking)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점검 (Checklist) -문법 (Korean Grammar)-문화요소 (Cultural Components)
ㄹ. KLEAR 1: 목표 (Objectives) (문화 (Culture)/ 문법 (Grammar)/ 과제 (Task)/ 기능 (Function))-대화 (Conversation)-산문 (Narration)-새 단어와 표현 (New Words and Expressions)-문화(Culture)-문법(Grammar)-과제 (Task)/기능 (Function)

자료 (26)과 같이 각 교재마다 단원 구성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원 구성이 이렇게 세분화된 것은 '도입 (warm up) → 제시·설명 (presentation) → 연습 (practice) → 사용 (use) → 마무리 (follow up)'와 같은 수업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이와 관련해 말하기 수업 방식에 대한 논의나 과제의 개념/ 기능/ 유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교재 단원 구성 개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과제를 단원 구성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3.4.2. 재외동포 대상 교재

재외동포 대상 교재로 조사된 37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8권이고 국외에서 출판된 것은 29권이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하여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 1-6』, 『한국어 회화 1-2』는 재외동포에게 보급하는 한편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e-book으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최근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개발된 재외동포 어린이를 위한 교재도 통합형으로 개발되었다. 이 교재는 재외동포 어린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생활, 세계의 일 등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여름학교에서 일어난 행사, 교우 관계, 여행, 쇼핑, 한국문화체험 등으로 상황이 설정되었다. 주인공과 친구들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으며 그 주인공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교재에 실린 내용이나 단원별 교수 내용이 '어휘, 기능, 문법 및 표현, 활동'으로 나누어 도표로 제시되어 있어 이 책을 통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27) ㄱ. 교재 유형: 기능통합형 교재, 회화 교재
ㄴ. 교재 체재
- 교재 등급: 학년별 등급, 6등급
- 교재 구성: 도입-단원-부록
- 단원 구성: 기능통합, 과제 중심 구성

자료 (27)과 같이 재외동포를 위한 교재는 기능통합형 교재와 회화 교재 유형이 있으며, 학교기관의 학년에 기준을 두거나 6등급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교재의 단원은 다음 자료와 같이 기능 통합과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8) ㄱ. 『한국어 1-6』 (2001-2002): 도입-학습목표-본문-문법-듣기-말하기-읽기-쓰기-새로 나온 말
ㄴ. 『한국어 회화 1-2』 (2000, 2001): 학습목표-대화문-새로 나온 말-따라하기-대화하기-이야기 만들기-듣기-함께 하기-쓰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1-6』 (2001-2002)는 언어 기능이 한 단원에 통합되어 있는 단원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어 회화 1-2』 (2000, 2001)도 여러 가지 언어 기능이 통합되어 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예전에는 국어교과서와 비슷하게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과제 중심, 기능 중심의 경향에 맞춰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한국어 교재의 구성과 체재의 특징을 문법 · 회화 교재, 문법 교재,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듣기 교재와 같이 교재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근·현대 한국어 교재 구성〉

교재 종류	구성	특 징
문법·회화 교재	도입	간단한 문법
	단원	본문→번역 유형
	부록	색인/ 음성학/ 특수 표현/ 편지투
문법 교재	도입	머리말/ 서언/ 책머리에/ Preface
	단원	본문→연습문제 유형
	부록	참고문헌/ 문법색인/ 연습문제 해답/ 기타 표현/ 문장 부호/ 발음 법칙/ 기타 문법에 관한 도표
회화 교재	도입	교재에 대한 개략적 소개 한국어 및 한글 소개: 자모/ 발음/ 억양/ 로마자표기 교재 사용 방법/ 교실에서 사용하는 말 교재 구성표 제시
		일러두기/ 머리말/ 서문/ 인사말/ 책을 펴내면서 Preface/ Introduction/ Forword/ Acknowledgement
	단원	본문→연습문제 유형 본문→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통합형 교재 유형
	부록	한국어 및 한글 소개/ 문법 및 발음 문법 및 문형 색인/ 어휘 색인 문제 해답/ 듣기 지문 및 자료
		어휘 색인/ 문법 색인/ 찾아보기/ 동사활용표/ 본문 영역 듣기내용 및 정답 Glossary/ Index (Vocabulary/ Grammar)/ Dictionary Appendix/ Review/ Translation/ Useful Expression
읽기 교재	도입	교재 소개/ 한글 자모 소개/ 참고문헌
	단원	본문 유형/ 연습문제 유형/ 본문→번역 유형 본문→공부할 문제 (연습) 유형 본문→단어→(기본문형)→질문 (연습) 제목→본문 이야기→질문→생각해 봅시다→발음을 연습합시다
	부록	어휘 색인/ 한자 혹은 문법 색인
듣기 교재	도입	교재 사용과 관련된 개요
	단원	문형→필수어휘→연습문제 연습문제→구조/표현/낱말
	부록	듣기 지문과 문제 해답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학습 대상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위한 교재와 재외동포를 위한 교재로 분류하고, 다시 국내에서 발행된 교재와 해외에서 발행된 교재로 분류하여 편찬 시기별로 특징을 살펴보았다.

근대계몽기부터 1958년까지는 외국인 학자의 문법/ 회화서 형식의 한국어 교재가 재외동포 대상의 교재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1959년대부터 1985년까지는 국내외에서 기관 중심의 교재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였다. 1986년부터 1997년까지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 집중되고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한다. 또한 과제 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교재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과제 중심, 기능 통합형 교재 개발 시작되는 시기이다. 또한 학문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산업체 근로자로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학습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다. 연구 성과나 교재의 출판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연구 내용이나 교재 내용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문화 소개나 문화 교육이 교육현장과 교재에 반영되는 추세이고 온라인 교재나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재를 수집 ·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주 교재인 말하기 교재에 비해 읽기 교재, 듣기 교재, 쓰기 교재나 활용교재가 그 종류와 수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급이나 중급에 비해 고급 교재도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고급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재도 개발 중에 있다. 곧, 한국어 교재는 현재 교재의 다양화 (언어별 / 기

능별/ 대상별), 교재의 전문화 (일반인 대상/ 전공자 대상), 교재의 시각화 (그림/ 사진/ 보조 자료 활용), 교재 내용의 표준화 (교육과정/ 표준문법)를 추구하면서 계속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근현대 국내외 한국어 교재의 특징>

구분			교재 특징		
1	1877년 ~ 1958년	외국인 대상 교재	교재유형		발음·문법 교재, 문법·회화 교재, 문법 교재
			교재체재	교재등급	상·하로 구성된 교재 2종, 나머지는 1권으로 구성
				교재구성	도입, 문법-어휘 (문장), 부록
				단원구성	단순한 구성 (본문-번역)
		재외 동포 대상 교재	교재유형		문법서, 독본
			교재체재	교재등급	등급 없이 1권으로 구성되거나 상·하권, 학년별 등급
				교재구성	도입-단원-부록
				단원구성	본문→연습문제 (공부할 문제) 유형
2	1959년 ~ 1985년	외국인 대상 교재	교재유형		회화교재, 읽기교재, 문법교재
			교재체재	교재등급	2등급/ 3등급
				교재구성	도입-단원-부록
				단원구성	본문→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재외 동포 대상 교재	교재유형		발음교재, 문형 교재, 읽기 교재, 작문 교재, 회화 교재
			교재체재	교재등급	등급 없이 1권으로 구성되거나 상·하권, 학년별 등급
				교재구성	도입-단원-부록
				단원구성	본문→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3	1986년 ~ 1997년	외국인 대상 교재	교재유형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듣기 교재, 문법 교재
			교재체재	교재등급	6등급 (1-6)
				교재구성	도입-단원-부록
				단원구성	본문→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재외 동포 대상 교재	교재유형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문법 교재
			교재체재	교재등급	2등급/ 4등급, 학년별 등급
				교재구성	도입-단원-부록
				단원구성	본문→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4	1998년 ~ 현 재	외국인 대상 교재	교재유형		기능통합형 교재, 회화 교재, 읽기 교재, 쓰기 교재
			교재체재	교재등급	6등급 (1-6), 초급/ 중급/ 고급
				교재구성	도입-단원-부록
				단원구성	기능통합, 과제 중심 구성
		재외 동포 대상 교재	교재유형		기능통합형 교재, 회화 교재
			교재체재	교재등급	학년별 등급, 6등급
				교재구성	도입-단원-부록
				단원구성	기능통합, 과제 중심 구성

참고 문헌

[연구논문]

고영근(1987),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고영근(1998),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고영근(2001), 『역대 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권미정(199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연구 - 기존교재의 검토와 새 모델의 모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만(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배(1997), 『평안방언연구』, 태학사.
김영아(2000),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숙(2002), "한국어 교수요목설계와 교재구성",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김중섭(1999), "북한의 한국어 교재 연구", 『박갑수교수 정년퇴임 논문집』
노마 히데키(2001),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언어권별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노명완(1998), "한국어 교육자료의 체제 분석",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마주르 유엔(1991), "러시아와 소련에서의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8』, 이중언어학회.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민현식(2002), "한국어 교재론", 『동남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오늘과 내일』,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배희임(1990)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재 연구", 『이중언어학 7』, 이중언어학회.

백봉자(1991), "한국어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 『교육한글 4』, 한글학회.
백봉자(1999),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신현숙(2003), "근현대 한국어 교재 분석: 단원명과 단원구성의 흐름".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8*.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신현숙·이지영(2003), "한국어 교재의 단원명과 단원 구성: 1981년~2003년".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연재훈(2000), "영어권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과 관련한 문제들",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원진숙(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원진숙(2000),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체재 개선 방안",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위태연(1982), "한국어 교육과 교재 개발의 방향, 『연구논총 8』, 서울대 재외국민 교육원.
윤금선(2004), "19세기 초 재미 한인의 국어교육", 『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이관규(1995), "한국어 교재의 구성 원리와 내용", 『이중언어학 12』, 이중언어학회
이상억(1983), "해외 교포 자녀를 위한 국어교육의 효율적 방안", 『해외 자녀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회.
이정노(2000),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이선아(2000), 『일본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분석과 개발 방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영(2003),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단원구성 변천", 『국어교육연구 1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이해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 12-1』,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인 알렉산드르(2000),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재 현황과 개발 방향",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장광군(2000),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학
장석진(197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교재편찬에 관한 기초 연구", 『언어교육 6-2』
정 광(1990), "중국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고찰",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 이중언어학회.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본 원리와 실제-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중천부(2000),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최정순(1996), "교재 구성에 있어서 과제(Task) 개념의 적용에 관하여", 『한국말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세계화재단(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한국어세계화재단(2003), 『국외 한국어 교육 자료의 실태 및 개발 방향』,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허재영(2003),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한국어)교육", 중국 국제한국어학회 발표요지.
허팔복(197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본의 체재 및 내용비교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현원숙(2001),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방향",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제2차 한국어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후지이시 다카요(藤石貴代)(2001),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Ross King(2003), G. V. *Podstavin* (1875-1924), *the World's First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his Teaching and Research in*

Vladivostok, 1899-19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강연회 요지.
Suray Agung Nugroho, Lee So Young(2002), "인도네시아 국립 가자마다 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및 문제점", 『동남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오늘과 내일』,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 논문에서 인용한 한국어 교재 목록은 제시하지 않음]

■ Abstract

A Historical Change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Lee, Jee-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 about Korean language textbooks from 1877 to 2004. Under this purpose, firstly it is focused on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textbooks, and secondly it is compared differences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lesson (unit) between textbooks for foreigners (KFL) and Korean who live foreign country. It is analysed the historical changes of lesson construction, lesson title, goal of learning (objectives), basic dialogue, drills, exercises, task, cultural components.

From 1959 to 1997 most textbooks are emphasized the pattern drills; substitution drill, response drill, transformation drill, level drill, combination drill and so on. Furthermore every lessons of textbooks have to show the goal of learning and culture points from low level to high level. There are many textbooks which Korean language institutions have published Korea and abroad, but it needs to develop various functional textbooks for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also for audio-visual aids and dictionaries according to the various type of learners' needs.

[Key words] Korean language textbook, historical change, objectives, cultural components, drills, exercises, task